

인문학의 요람 후마니타스 칼리지 아직은 발전이 필요한 단계



▲ 정용필 전 국제캠퍼스 총학생회장

후마니타스 칼리지는 출범한지 이제 겨우 만 2년이 지나간다. 2011학번 학생들부터 기초교과와 중핵교과를 배운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전의 학번(2010학번 이전)의 학생들에게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교양교육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선배로서 바라본 후마니타스 칼리지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교양교육 개편 이후, 교양과목들이 체계적으로 나뉘고, 수업의 수도 늘어났으며, 질적으로도 좋아졌다. 배분이수교과가 다양화되었고, 자유이수교과도 흥미로운 강좌들이 많이 개설되어서 학생의 입장에서 매우 만족스럽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교과명이나 커리큘럼, 수업목표는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 수업은 전혀 다르거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부실한 강좌를 예로 들 수 있다. 중핵교과와 기초교과는 같은 목적을 두고 같은 내용을 수업하는 과목이다. 하지만 가르치는 교수가 누군지에 따라 평가방식, 평가내역 등이 천차만별이라고 비판했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양교육의 진정한 취지와는 어긋나기 마련이며 학점받기 쉬운 강의에 학생들이 편중 될 수 밖에 없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수업시간 운영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했다. 현재 75분을 1교시로 지정하여 수업을 하다 보니 충분한 강의시간이 확보되지 못한다고 했다. 이것은 교수의 입장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해 보았을 때 결코 좋지 않다고 했다. 물론 2교시를 묶어 연강으로 진행하여 충분한 강의시간을 확보하는 교과목도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강의가 1교시씩 나눠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교육시간이 충분치 않다고 전했다.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교양교육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 중에 있다.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사업은 국제사업으로 지정되었으며, 학교 측에서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보면 아직 고쳐나 가야 할 점이 많다. 후마니타스 칼리지는 이제 갓 심어진 나무의 묘목이다. 때문에 학교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함께 만들어나가야 할 부분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도 기존의 딱딱한 주입식 강의에서의 수동적이고 기계적으로 수강하는 태도를 지향해야 하며, 적극적인 참여,

활발한 토론을 지향하는 태도로의 변모가 필요하다. 결국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궁극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 수업의 중심 구성원인 학생들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후마니타스 칼리지가 지향해야 할 발전 방향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설립취지와 진정한 교양교육의 목적을 따져보면 무의미한 경쟁을 부추기는 상대평가방식보다는 절대평가방식이 그 의미에 더 부합한다. 현재 기초교과와 '시민교육' 과목은 절대평가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서울캠퍼스에서 나타난 '글쓰기' 과목 평가방식 변경과 같은 변화는 궁극적으로 중핵교과와 배분이수교과, 자유이수교과에까지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다만 무분별한 절대평가화는 지양해야 한다. 양질의 교양교육을 지향하기 위해 평가의 기준을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문제인 수업마다 들쭉날쭉한 평가기준을 편준화하는 것도 이와 부합한다. 물론 이런 형태를 지닌 평가 방식의 운영은 당장 실현하기 어렵다. 때문에 올바른 기준에 맞춰 평가 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며 이것의 궁극적인 결과로는 양캠퍼스 단일 기준의 도출이어야 한다.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행정 조직도에 따르면 대학장 밑에 서울학장과 국제학장을 따로 두고 운영하는 형태이지만 크게 보면 하나의 조직 안에서 운영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11년 8월 법적 본·분교 개별 지정문제에 대해 우리학교는 서울-국제간의 법적 본교 승인을 받았으므로 앞으로는 서울-국제간 단일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는 각 캠퍼스의 성격에 맞추어 이미 많은 부분에서 독립적인 운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 행정적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가 나뉘어 운영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단일운영을 원칙으로 각 캠퍼스 간 적정선의 자율권을 인정하는 것이 옳바르다고 판단된다.

이정후 기자
athanatos44@khu.ac.kr

사람을 만나다... <2012년을 돌아 보며> 외국어대학 학생회장 김지현 학우



▲ 김지현 전 국제캠퍼스 외국어대학 학생회장

2012년을 뒤로 하고 2013년 새학기가 시작했다. 축제를 비롯해 다양한 행사가 있었던 2012년, 많은 학우들이 이 름 모를 누군가의 노고 속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왔을 것이다. 자신을 크게 드러내지 않고 활동했던 많은 이들, 그리고 그 속에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직접 움직이고 고민했을 이, 외대 학생회장 김지현 양을 만나보았다.

기자 : 반갑다. 구체적인 질문 전에 먼저 묻고자 한다. 학생회에 대해 모르는 학우들이 많다. 학생회는 어떻게 조직되어 있으며, 각 과 학생장과 어떻게 협력하는가?

김지현 : 학생회의 조직은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집행부로 이루어져 있다. 직책에 따라 각자 다른 업무가 있다기보다는 유동적으로 업무가 부여되고 서로 도와가며 일을 처리한다. 이 덕에 일 자체에 대한 압박은 없는 편이나 인원이 적어서 때로는 힘들 때도 있다. 다음 질문에 대해 답하자면, 외대는 회의 시 과장과 함께 협의하여 유동적으로 학생회를 꾸려 나간다. 특히 축제와 같이 협력이 필요한 경우 서로 간의 소통이 필수적이다.

기자 : 인원이 적어서 힘들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가장 힘들었던 때와 보람 있었던 때는 언제인가?

김지현 : 일이 쉬운 편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힘든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일손 부족보다는 홀로 업무를 처리할 때의 그 텅 빈 분위기가 가장 힘들다. 이럴 때마다 각 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하다. 가장 보람 느꼈을 때는 축제나 뷰티콘, 농활 등의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했을 때 주변 사람들로 부터 좋은 평가를 이끌어 냈을 때다. 2학기 같은 경우 축제가 타 학교에 비해 활발한 편은 아니기에 참여형 활동을 유치하였다. 이 덕에 많은 학우들이 축제를 즐겼다는 말을 들었다.

기자 : 행사 등 큰 지출이 있는 활동은 미리 계획해야 될 듯한데, 언제 계획을 짜는가?

김지현 : 지출의 내역은 네이트 클럽에 명시해 두었다. 주로 방학에 짜다. OT 계획이나 1년 계획 등 큰 틀을 잡고 기획안까지는 나오지 않아도 점차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확대하는 식으로 계획을 만들어 나간다. 또한 학생회 존재의 기본 취지에 맞춰 활동하는 것에 중심을 두며 간부나 집행부 위주의 수련회 또한 이때 계획해둔다.

기자 : 신입생 OT 때부터 외국어 대학 신축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 이 계획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김지현 : 일단 1차 신축은 외대, 공대, 체대로 계획하고 있다. 부지 매입, 건축허가와 같은 성과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필요한 단계이다. 신축 공간은 국제대학 뒤쪽으로 결정되었다. 사색의 광장을 중심으로 대학 건물이 모여 있는 것이 학교가 구상한 마스터 플랜의 목표이다.

기자 : 학생회장께서는 학생회장이 되고자 했던 동기가 있는가?

김지현 : 주체적으로 학생회장이 되고자 하는 생각은 없었다. 원래 이전부터 줄곧 일을 도와주고 있었다. 후보 마감을 앞두고 후보가 공석인 상태에서 추천을 받아 생각해보게 된 것이다. 추천이 없었더라면 휴학을 하여 스스로 공부를 하고자 했었는데 함께 하는 이들의 말을,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문제에 대해 외면하고 싶지 않았고 힘을 싣고 싶었다.

기자 : 가장 묻고 싶었던 질문이다. 학생회장에게 있어서 외국어 대학 학생회란 무엇인가?

김지현 : 학생회는 '아쉬움'이다. 학생회장이 되고 처음 목표 중 하나가 "내가 하는 학생회가 너무 재밌어 보여서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즐거운 학생회를 만드는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 그러지 못했다. 또 하고 싶은 일이나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았지만 다 하지 못한 것도 아쉽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었고, 학생회 일도 더 잘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다.

기자 : 시간을 내어 인터뷰에 응해주어서 감사하다. 마지막으로, 외국어 대학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김지현 : 신영복 작가는 그릇을 키우는 공부를 하라 했다. 오늘날 현실적인 부분, 특히 스펙만을 추구하며 따르는 경향이 있지만 이것 이외의 본질적인 그릇을 키우라는 말이다. 외대 학우들이 스펙과 관련된 활동에만 매달리지 말고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경험을 통해 좀 더 성숙한 인간으로의 성장을 지향했으면 좋겠다.

이수지 기자
carpe_cara@khu.ac.kr